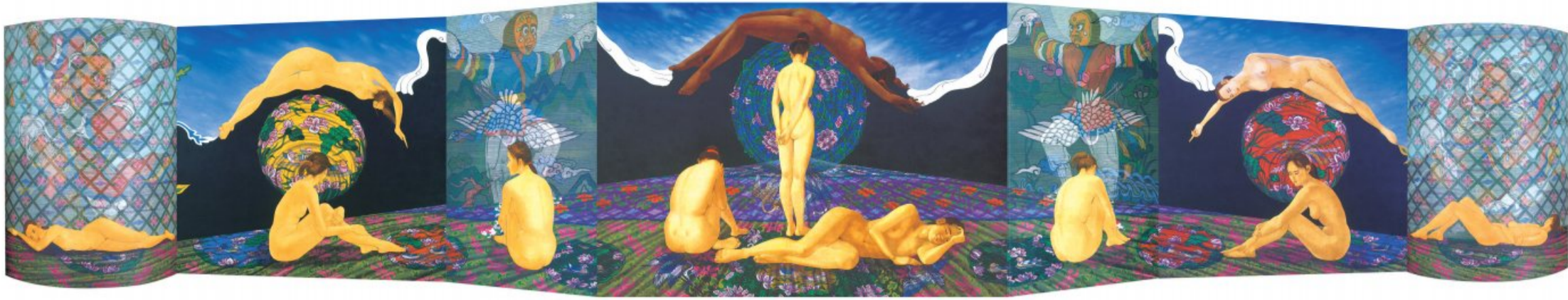


오월의 상흔, 5월의 사유



오는 6월 30일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는 '비단길' 전 출품작 고(故) 이강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상현 작 'Stand Again'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해다. 각 계에서 5월 그날의 아픔과 상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로 소통하고 사유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다.

◇ACC '공감본능'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공감이라는 인지적, 감성적 요인으로 풀어낸 전시 '공감본능'이 복합6관에서 23일까지 개최된다. 지역연계 우수전시기획자인 이번 전시는 한국의 5·18민주화운동과 위안부 문제, 필리핀과 대만의 역사적 사건 등을 모티브로 기억을 탐구하고 현재적 의미를 묻는다. 배면에는 공감이라는 감성적 코드가 자리한다.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는 상당부분 공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사전적 의미의 공감은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를 말한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관점으로부터 해석하고 판단하는 나머지 전혀 감응하지 못한다.

미술계 전시 잇따라

ACC '공감본능' 전 23일까지

이강하미술관 '비단길' 전

갤러리 생각상자 '위드 미얀마!' 전

이번 기획전은 3개국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한국의 김진남, 신재은, 이상현, 조말, 강수지, 이하영, 필리핀의 키리 달레나, 대만의 치아웨이 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고흥 출신으로 광주에서 거주하는 김진남 작가의 '붉은 눈물' 시리즈 앞에 서면 일순간 먹먹함을 느끼게 된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여성의 인권 문제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눈물을 투영한 작품은 깊은 울림과 감성적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이상현 작가의 '부질없는 기다림'과 '뭇을 바다'는 아픔의 과거가 주는 역사의 상흔을 환기한다. 맞은편 작품 'Stand Again'은 80년대 시대의 광풍에 맞서, 마침내 굳건히 일어서는 저항의 메시지를

를 나무의 거친 질감으로 전달한다.

대만 치아웨이 수의 'The Story of Hopping Island'는 2차대전을 배경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차출된 작가의 할머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당시 대만은 일본 남쪽지역팽창정책을 위한 주요 거점지였다. 대만 조선소에서는 전쟁을 위한 배들이 정박해 수리되고 있었고, 부두 건설도 진행됐다. 작가는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할머니 시선으로 다른 하나는 조선소 다큐멘타리를 통해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으로 풀어낸다.

◇이강하미술관 '비단길' 전

이강하미술관은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전 '푸른 상처, 별의 공존'을 연 데 이어 올해도 기념전을 마련했다.

'비단길: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6월30일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고(故) 이강하 작가의 그림과 퍼포먼스 작가 신용구의 작업이 어우러진 기획전이다.

1980년 격동의 시대를 견뎌낸 '무등산 화가' 이강하 작가의 작품으로는 길이 1.2m에 이르는 대작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를 비롯해 오월과 광주를 이야기하는 그림들이 나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국가의 역사와 기억, 희망의 메시지를 현대적 주술과 영(靈)으로 표현해온 퍼포먼스 예술가 신용구는 샤머니즘적 은유와 초현실주의 관점을 담아 이 작가의 작품을 설치와 영상작업으로 구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90년대 대표작 '무등산과 비단길' 연작을 통해 협업을 시도했다. 신 작가는 이 작가의 '무등산과 비단길'을 오마주, 무등산에 한자로 만든 '길'을 재현하는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담아냈다. 서로 다른 시를 살고 있는 예술가의 이야기가 화화와 퍼포먼스로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월요일 휴관. 매일 두차례(오전 11시·오후 2시) 도슨트 해설 진행.

◇갤러리 생각상자 '위드 미얀마!' 전

올해 오월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술계에서도 미얀마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오는 7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리는 'With Myanmar'전은 미

얀마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담아 전국에서 보내온 대한민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프로젝트다.

같은 기간 메이홀에서 열리는 '망고나무숲을 흔드는 불바람'전은 미얀마의 생생한 모습을 현지 작가들이 풀어낸 작품을 만나는 기획으로 미얀마저항미술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갤러리 메이홀과 갤러리 생각상자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전남대 용봉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

지원포럼, 6일 전일빌딩 245서 포럼

지난 2월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변화와 향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오는 6일 오후 2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문화전당의 미래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깊은 고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전당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조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문화공동체실장이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와 '문화전당과 지역 새로운 협력과 연대'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한다.

그리고 황병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조덕진 무등일보 논설실장, 이담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2회 선정상상인 문학상 공모

도서출판 '상상인'

도서출판 '상상인'은 제2회 선정상상인 문학상(상금 500만원)을 공모한다.

이번 문학상은 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탈피한 소통하는 문학을 지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상인'과 선정상상인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며 선정사업이 후원한다. 등단 5년 이상 기성 시인이면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시 50편 이상(시집 발간 형식·시집 가제, 약력, 목차, 본문 1-4부)을 메일(ssaangin@hanmail.net)으로 보내면 된다.

응모된 작품은 문단 권위자를 위촉해 오는 10월 초 심사를 진행하며 수상자는 개별통보와 '상상인' 2022년 상반기기호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집은 도서출판 상상인으로 시집이 발간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 선정사업 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7371-187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엄마의 품, 밥상, 꿈... 그리움

캔버스 위 한상 가득 차려진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의 그릇들

류미숙 작가, 서울·광주 개인전

영산강문화관 25일~6월25일

▶ '엄마의 밥상'

서양화가 류미숙 작가의 작품 주제는 '어머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엄마가 사용했던 접시, 공기 등이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됐고, 류 작가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엄마를 기억하고, 추억했다. 50년간 운영되던 식당은 그의 작업실이 되었고, 작품 속엔 엄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겼다.

류미숙 작가 개인전이 서울과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부모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애뜻하고,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전시라 이곳 저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서울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전남문화재단이 인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G&J갤러리(5월-11월)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신문 서울갤러리(14일-21일)에서 연이어 열린다. 광주 전시는 영



산강문화관(25일-6월25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 제목은 '엄마의 밥상'이다. 지난 2019년 아트페어를 시작으로 지난해 두차례 초대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던 그는 같은 소재지만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기법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줬다.

그의 그림은 품이 많이 든다. 각종 그릇에 그림을 그린 후, 접시와 공기를 직접 짚 캔버스에 밀어 붙이는 작업은 만만치 않다. 이번엔 새롭게 시도한 것은 '마사토'를 반죽해 화면에 발라 독특한 입체감을 부여한 점이다. 물감을 여러번 발라 캔버스에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 후 요리하는 엄마의 모습과 도마, 주걱 등 엄마의 물건들을 '감추듯' 부착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캔버스를 액자

처럼 파내고 그 속에 산 등을 배치한 작업도 눈길을 끈다.

그림의 주제는 '엄마의 꿈'이다. 또 어미 닭과 갓 부화한 병아리들의 평화로운 한 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엄마의 품' 시리즈와 화려한 색감의 인물화 '그리움'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작품에는 꽃과 나비, 새와 벌, 그리고 자신의 꿈도 담았다. '자유'라는 이름을 단 50여개의 소품은 울동감 넘치는 추상화로 표현해내 눈길을 끈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19로 꼬박 작업에 매달려 있었던 류 작가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이 나오고 꼭 해야만 할 작업'이라며 '결국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모습과 가족, 나아가 우리의 삶까지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